

2019년 3월 1일



## 자기를 부인하라? - 왜 그래야 할까?

아세르 인트레이터

예슈아께서는 우리의 “예”는 “예”가 되게 하고 “아니오”는 “아니오”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(마 5:37). 문맥상 주님께서서는 종교적 맹세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지만,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은 선이고, 악은 악이라고 말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(사 5:20).

무엇에 대해 “예”라고 말합니까? 모든 선한 것에 대해서입니다!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슈아를 통해 “예”와 “아멘”이 됩니다 (고후 1:20). 우리는 모든 선하고 정결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(빌 4:4-8). 하나님의 약속들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낙관적인 태도를 발전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됩니다 (롬 12:1-3).

그러나 우리는 악한 것들에 대해 “아니오”라고 말하기도 해야 합니다. 악은 세 가지 근원에서 오는데, 세상 (사회적 압력), 육신 (교만과 정욕), 마귀 (사악한 정신)입니다.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모든 것에 대해 “아니오”라고 말해야 합니다.

## 육신을 장사지내라

예슈아께서는 “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”고 말씀하셨습니다 (눅 9:23). 예슈아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축복에 이르게 됩니다.

그러나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은 “자기 부인”으로 시작됩니다. 우리 자신의 이기적 욕망에 대해 “아니오”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랍비들은 이것을 ‘יצר הרע’ **예제르 하라** 즉 악한 본성이라고 부릅니다.

함께 생각해 보지요.

1. 십계명 중 몇 가지가 “너는 ...하지 말라”로 시작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!
2. 시편 1편은 “하지 아니하며”로 시작됩니다. “**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,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,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.**”
3. 예슈아의 위대한 겿세마네 기도는 “**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...**”를 거듭 말씀하십니다 (마 26:37 후반)
4.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“**절제**”입니다 (갈 5:22-23).
5. 절제는 “**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**”가 되는 일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(벧후 1:3-7).

바울은 “자기”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말하기도 했습니다. “**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(갈 2:20), “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(갈 6:14), “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(갈 5:24)**”. 이는 어떤 식으로든 “자책” 혹은 “자기비난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,

악의 영향력에 대하여, 특히 우리 자신의 죄된 본성에 대해 “아니오”라고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.

자기부인은 자기비난의 반대입니다.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일입니다.

**“메시아 예수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(로마서 8:1).”**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것은 예수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(히 9:14, 10:1-3, 12:24).

그러나 우리를 정죄에서 자유케 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는 이기적 본성과 정욕을 “죽이기”도 하십니다. **“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...” (롬 8:13).** 성령의 일에 대한 모든 멋지고 긍정적인 구절에서 우리는 그 구절을 지나쳐 “매끄럽게” 나아갔습니까? 성령께서는 육체의 일에 제동을 거십니다.

## **안에서 밖으로**

자기 절제라는 성품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?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조물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 우리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(창 1:26-29). 우리는 주님과 함께 **“다스리고 통치하도록”** 부르심 받았습니다 (롬 5:17; 계 5:10; 20:6). 자기 절제는 사실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. 여러분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다면,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릴 준비가 된 것입니다.

**잠언 16:32 -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.** 사람은 외적인 것들을 다스릴 수 있기 전에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. 하나님의 피조물을 지배하는 일에 앞서 우리 자신을 지배해야 합니다.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 가지고 계신 최고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품격입니다.



## 후회하심이 없는

## 이스라엘의 부르심

댄 저스터가 메시아의 재림과 관련해  
이스라엘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  
말씀을 전합니다.

[여기를 클릭하세요!](#)